

자치경찰 시대 개막...“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오늘부터 전국 전면 시행...지방·치안 행정통합 치안 서비스 제공
어린이·여성·노약자 등 사회적약자 보호 ‘광주형 치안 시책’ 발굴
고령사회 전남, 도 경찰위 1호 시책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 대책’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에 자치경찰 시대가 열렸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사무를 넘겨받아 주민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분야를 담당하는 게 핵심이다.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만에 가장 큰 변화로, 일부에선 준비 부족에 따른 혼란과 경찰과 자치단체간 지역 유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자치경찰제가 그동안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에 돌입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된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사·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자치경찰 사무는 크게 순찰·범죄예방시설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아동·여성·청소년 등 보호 및 범죄 예방 등 주민생활안전 분야와 교통법규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등 심의·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허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긴급자동차 지정 허가 등 지역교통분야, 지역 내 다중이용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지역경비 분야 등 3개 분야로 구분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 시책 도입,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결합된 통합적 치안 서비스 제공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자치경찰 위원회는 김태봉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위원으로 구성돼 5월 10일 출범했다. 그동안 4차례 회의를 거쳐 각종 규정과 규칙을 마련하고 유관 기관들과 협업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광주 자치경찰은 첫 번째 시책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정하고 보호 구역 사중점을 표시하는 시인성 강화 사업, 법규 위반 단속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온남초등학교 교문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도 자치경찰 위원회는 1호 시책으로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 종합 안전 대책’을 선정했다. 조만간 위원장을 비롯한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5월 말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인

구가 23.8%로 초고령화 사회인 전남의 특성을 반영해 첫 시책을 결정했다. 도 자치경찰위는 위기에 처한 어르신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활동’ 강화, 어르신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 대응체계 확립, 1인

가구 어르신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활동 등을 통해 어르신이 안전한 전남 만들기 에 나선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첨단부품 등 15개 기업과 598억 투자협약

6개 시군 228명 고용 창출 기대

전남도가 지난 30일 목포, 순천, 나주, 담양, 장흥, 영암 등 6개 시·군, 첨단부품·식품기공 등 15개 기업과 598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228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했다.

목포 대양산단에는 정남정보통신(주)이 25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발전시설과 상수도 검침을 원격 제어하는 전산장비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전남정밀기어는 24억원을 투입해 김 건조기, 폐기물처리기 등 산업용 기계와 기계설비 부품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나주 혁신산단에는 (주)한국이알이사와 시엔에스(주) 등 2개 기업이 각각 50억원과 68억원을 투자해 배전선로용 변압기와 개폐기 제조공

장을 신설한다. 담양 일반산단에는 충남 공주에서 이전한 주도퍼니처가 20억원을 투자해 목재가구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연우정밀은 광주 진곡산단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 20억원 규모의 금속정밀 가공공장 신설한다. 저온저장고를 제작하는 한울냉열도 21억원을 투자해 2공장을 증설한다.

순천 해룡산단에는 4개 기업이 174억원을 투자한다. (주)스타스테크가 30억원을 투자해 조달청에 납품할 친환경 액상제설제 및 액상소다회 제조공장을 설립한다. 자동차·이차전지·반도체 등에 쓰이는 접착성도료 제조 기술 특허 5건을 보유한 (주)알씨마코리아는 80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수성접착 증진제를 생산한다. 국내의 기업에 공급할 예정으로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소재용 접착 도료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알비니코리아도 30억원을 들여 저농도 가성소다와 염산 제조공장을, (주)동부이엔씨는 34억원을 투자해 단열·방음·기밀성이 우수한 시트 탭장치 제조공장을 신설한다.

장흥 바이오산단에는 다원그룹(주)이 37억원을 투자해 쌀과 생분해성 수지 혼합물 원료를 이용한 농업용 친환경 멀칭필름 제조공장을 건립하고 향후 쌀 생분해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모아푸드(주)는 80억원을 투입해 오리, 생선 등 훈제식품 생산공장을 구축한다. 바이오피아(주)와 (주)소담은 각각 48억원과 31억원을 들여 고품질의 근종 사료와 고무마 맛탕 제조공장을 신설한다. 한편 민선 7기 이후 전남도는 794개 기업과 21조5259억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187억원 투입

농촌 악취의 원인이 되는 가축 분뇨, 퇴비 등의 냄새를 저감하는 시설이 대거 설치된다. 전남도는 30일 “농식품부의 ‘2022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무안, 보성 등 8개 시·군이 선정돼 18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안·고흥·해남이 30억원, 장흥 28억원, 보성

26억원, 영암 16억원, 순천 15억원, 곡성 12억원 등의 사업비가 배정됐다.

축산악취개선 사업비는 축산농가와 퇴·액비 유통 전문조직에 필요한 퇴비사와 액비저장조, 축분교반기, 정화시설, 액비 순환시스템, 액비 수거·운반·살포용 차량, 악취 저감 시설 등을 구축하는데

사용한다.

전남도는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대상 농가의 인허가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50개 시·군이 참여했다. 전남도는 시·도 자체 평가와 중앙 서류심사, 중앙 발표평가 등 치열한 경쟁을 거쳐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시도별로 전남에 이어 경기 전북 각 6개, 경북·경남 각 5개, 충남 4개, 충북 3개 등을 차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1만4000곳 안전점검서 1000건 지적

철거 공사 현장 7곳 공사 중지

광주시가 학동 재개발 현장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풍영정전 수난 사고 이후 진행된 1만 4000여 곳에 대한 안전 점검에서 1000여건의 지적 사항이 쏟아졌다.

광주시는 “최근 2주간 특별 안전 점검을 거쳐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광주시, 자치구, 공사·공단, 민간 전문가 등 7580여명이 참여해 공사 현장, 교통·환경·재난 취약시설 등 1만4833곳을 점검했다. 점검단은 1083건 미비 사항을 적발해 현장 조치 또는 보수·보강 조치했다.

철거 공사 현장 점검에서는 해체계획서 미준수, 해체 신고 절차 미이행,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운암3단지, 남구 수박동, 주월 잠미 등 7곳 공사를 중지시켰다. 가설 울타리 등이 미흡한 18곳은 현장에서 보완·시정하도록 했다.

재건축 사업 철거 현장 주변 시내버스 정류소 2580곳도 점검해 8곳을 임시 정류소로 이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택시 승차대 2곳 이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어린이 2명이 숨진 풍영정전 내 점검 다리에 안전 표지판과 진입 차단봉을 설치했다. 시민 긴급 안전신고센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인근 주택 구조물 붕괴 위험 등 신고 2841건을 접수하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 지원 ‘효과’

광주시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해 주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금까지 설치된 112곳의 방지시설 교체 전후 대기오염배출농도를 검사한 결과, 먼지 평균 농도는 방지시설 교체 전 6.77mg/Sm³에서 교체 후 2.63mg/Sm³으로 61% 저감됐고, 총탄화수소

는 75.64ppm에서 24.04ppm로 69%가 저감됐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교체)와 사물인터넷(IoT) 감시 시설 설치비의 90%까지 지원(최소 2977만원~4억 5000만원)하고, 사업장의 방지시설 가동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12곳에 101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40곳에 5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무무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기(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